

공포만화의 잔혹성에 관한 연구 : 이토준지의 <토미에>를 중심으로

안소미

목 차

- I. 서론
 - II. 공포만화 <토미에>의 심리의 잔혹성
 - III. 공포만화 <토미에>의 묘사의 잔혹성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초 록

만화에는 시사, 순정, 학원, 무협, 스포츠, 심리, 학습, 생활, 공포 등의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공포 만화는 사실적이거나 과장된 묘사와 있을 법한 이야기 또는 과장되거나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 이토준지의 공포만화는 국내에 소개된 이후로 독자층이 형성되어 여러 판본으로 인쇄되었다. 본 연구는 공포만화의 장르를 분석함으로써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토준지의 공포만화 중 <토미에>는 흔히 보아온 공포물의 구조에 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토미에>만의 잔혹한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잔혹한 공포만화는 만화의 한 장르로서 장르 분석의 중요성을 환기 시킨다. <토미에>는 공포 중에서도 '잔혹성'의 측면에서 집요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은 거부하고자 하면서도 즐기는 '카타스트로피' 효과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토미에>의 잔혹성을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본 '묘사의 잔혹성'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 공포만화, 이토준지, 토미에, 공포박물관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뉴스를 통해 있을 것 같지 않은 잔인한 사건들을 일상에서 매일 접한다. 존속 살해사건이나 토막 살인과 같은 사건들이 영화 속 판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텍사스 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진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와 <쏘우>로 대변되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비현실적인 상상과 과장을 바탕으로 잔인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임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잔인하면서도 공포스러운 만화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에서는 공포만화의 장르가 일부 작가들에 의해 간혹 다루어지는 소재이지만 일본은 공포만화 작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인식되는 작가들이 있다. 그 작가들 중에 국내에서 번역되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작가가 이토준지¹⁾이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토미에>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토미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잔혹성을 극단적 잔혹함으로 묘사하는데 치중한 만화이다.

토미에는 이토준지 공포만화 컬렉션 17권 중 3권 '토미에 PART1', 4권 '토미에 PART2', 17권 '토미에 Again'의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모티브는 '죽음'과 '재생' '증식'이다. 책의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만큼 토미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자 유혹적이며 파괴적인 팜프 파탈의 여인으로 과장되어 묘사되고 있다. 또한 괴물이나 귀신같은 기괴한 생명체로 묘사된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토미에가 남자에게 접근해 사랑을 받지만 결국에는 남자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토막 나고, 찢기고, 으깨지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재생하고 증식한다. 신체의 일부가 완전한 모습으로 재생하기도하지만 섬뜩한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증식한 토미에들은 기억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신이 아닌 다른 토미에들을 없애려고 한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충실한 이토준지의 공포만화 <토미에>는 극단적이면서 과장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포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남성의 집착하는 미(美)에 대한 파괴본능이다. 두 번째는 여성이 갖고 있는 미의 증식 욕구를 보여주면서 섬세한 그림체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반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다. 공포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마니아층이 형성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독자인 여성은 토미에를 통해 모든 남자로부터 사랑 받는다는 대리 만족과 토미에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싶다는 파괴욕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 공포만화의 특징을 든다면 인간의 잔혹성을 토미에 살해로 표출시키며 재생을 통해 공포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독자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즉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토미에라는 존재를 통해 잔혹성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두렵지만 그것에 가까이 가려는 반대급부적인 심리가 있다. 잔인하고 무서운 것을 보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공포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

1) 이토준지 : 1963년 일본 기후 현 나카즈가와 시 출생의 공포만화가이다. 대표작으로는 <토미에> <소용돌이> <목매다는 기구> <미미의 괴담>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시공사가 그의 작품을 독점 번역 출판한 <공포만화 컬렉션> 시리즈로 유명해졌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86%A0_%EC%A4%80%EC%A7%80, 2011)

록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스스로 이겨 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받아들이고 재해석된다. 이러한 극단적 심리 변화는 공포를 즐거움으로써 반동형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심리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범주 밖의 심리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공포를 극단적 심리 변화에 포함 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공포가 현실에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공포물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인간 내면에 두려워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데 본 글에서는 잔혹하지만 공포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심리를 공포만화 <토미에>의 잔혹성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기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방어기제의 일환으로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에 접근하려는 극단적인 심리 변화가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난다. 격투나 투우, 사형 등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잔혹한 공포만화를 보면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공포만화를 즐기는 인간 심리를 이토준지의 공포만화 <토미에>를 분석하여, ‘공포만화 <토미에>의 심리의 잔혹성’과 ‘공포만화 <토미에>의 묘사의 잔혹성’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II 장 ‘공포만화 <토미에>의 심리의 잔혹성’에서는 ‘공포’, ‘카타스트로피’, ‘잔혹성’으로 <토미에>에 나타나는 심리를 단계별로 설명 하고자 하였다.

III 장 ‘공포만화 <토미에>의 묘사의 잔혹성’에서는 ‘묘사의 잔혹성’과 ‘서사구조의 잔혹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묘사의 잔혹성’에서는 공포만화 토미에의 묘사를 중심으로 잔혹성을 분류하였다. ‘신체파괴의 잔혹성’은 신체를 파괴하는 잔혹한 묘사이며, ‘신체변형의 잔혹성’은 신체가 변형되는 잔혹한 묘사이며, ‘신체증식의 잔혹성’은 신체가 파괴됨으로써 변형되고 증식하는 잔혹한 묘사이다.

두 번째 ‘서사구조의 잔혹성’에서는 공포만화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과 토미에를 중심으로 잔혹성을 분류하였다. ‘남성의 잔혹성’은 토미에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행위의 주체인 남성의 잔혹성이며, ‘토미에의 잔혹성’은 토미에가 증식된 토미에들에게 가하는 잔혹한 행위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토미에의 잔혹성이다.

II. 공포만화 <토미에>의 심리의 잔혹성

공포만화 <토미에>의 심리의 잔혹성을 ‘공포’와 ‘카타스트로피’, ‘잔혹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토미에>의 공포는 토미에의 죽음이자 죽은 사람이 되돌아와 ‘재생’과 ‘증식’을 무한 반복하는데서 온다. 카타스트로피는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의 급진적 심리변화이자, 잔혹하다고 느끼지만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토미에>를 보는 독자의 심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잔혹성은 <토미에>를 무참히 토막 살해하는 과정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죽음과 재생을 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1. 공포

공포는 사전적 의미로는 괴로운 사태가 다가옴을 예기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공포를 유발하는 상태는 괴로운 사태에 처해있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 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어난다.

프로이드는 ‘공포’를 말 할 때 ‘죽음’과 관련지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에 마주하게 되며, 크게 두 가지의 공포로 나누었다. 하나는 개인이 갖는 신체적 정신적 약함에서 오는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재해 위협에서 오는 불안을 불식시켜줄 공동체의 해체였다.

공포만화 <토미에>의 공포는 죽었던 토미에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죽은 것으로 확신했던 대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약함에서 오는 공포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살해했던 토미에가 살아 돌아오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불식시켜줄 공동체의 해체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공포를 즐기려하는 데는 현재 처한 상황이 해결 가능하다는 기대와 함께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며, 비극적 상황을 쾌락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토미에가 죽었다는 비극적 상황을 재생이라는 비현실적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쾌락과 더불어 또 다른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듯 공포를 즐기려하는 데는 인간의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과 항공포(counterphobia)행위에 의한 급진적 심리 변화로 인한 억눌린 감정이 분출하는데서 오는 카타르시스의 유발로 이해 할 수 있다.

2. 카타스트로피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던 일이다.

공포만화 <토미에>를 보면 사랑하는 토미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남성이 등장한다. 토미에를 사랑하는 감정이 한순간에 증오 분노 등과 같은 감정으로 바뀌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돌발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감정 즉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극단적인 심리 변환을 넘어 살인이라는 행위에 이르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란 그리스어 카타스트로피(katastrophe)에서 온 말로 사전적 의미는 돌연히 나타나는 광범위한 큰 변동, 가령 전쟁에 의한 재해 같은 것, 파국 또는 종말을 의미한다.²⁾ 불행, 불운, 재난, 대실패, 파멸, 파국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가 급진적 변화에 따라 반대의 감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결 할 수 없는 문제, 즉 실패에 직면 했을 때 그 실패에 따른 반대감정을 선택하게 된다. 실패의 목전 까지 왔을 때는 흥분 상태로

2) 카타스트로피 :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상태’ 이처럼 사랑과 미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갑자기 서로 뒤바뀌는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33>, 2011)
본 논문의 카타스트로피 정의는 빅센의 심리학 통이 되는 책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유지되었던 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정점에 달했을 때 반대감정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입장을 간 아이가 부모에게 다시 버림을 받을 까봐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생각을 하는 일중에 급진적 심리 변화로 사랑과 증오, 공포와 쾌락이라는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인 반동형성³⁾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추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번지점프나 공포영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무서움을 감수하려는 것이 항공포행위이다. 이러한 현상을 무섭지만 즐겁다고 느끼는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동형성과 무섭지만 그것에 반복적으로 직면하려는 항공포행위에 의한 급진적 심리 변화인 카타스트로피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실제로 무서운 것을 보며 무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포의 대상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받아들여 공포라는 감각을 무더지게 해서 습관화 시키는 것이다. 공포의 대상에 몇 번이고 직면하다 보면 처음 한 번의 공포보다 순화 되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공포를 해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표면적 공포를 무더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을 스스로 택하여 공포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다.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는 내재되었던 감정이 작은 영향으로 인하여 표면으로 분출되면서 급격한 변이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카타스트로피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숙주하고 있는 것이 모습을 드러낼 때 불안과 합해져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증폭되었을 때 그 크기는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3. 잔혹성

“잔혹성은 엄격함을 의미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나 적용,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태도를 의미한다.”⁴⁾ 잔혹성의 사전적 의미는 잔인하고 혹독한 성질을 뜻한다. 잔혹한 성질은 인간의 구속된 삶 속에서 억제된 욕망이 분출되는 과정을 통해 잔인한 성질과 파괴를 동반한다.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과 잔인하고 파괴적인 성질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잔혹성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재하고 있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잔혹성은 잔인함과 함께 파괴를 내포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세분화 시켜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가 결합되었다고 보았다. 인간의 무의식에 해당하는 원초아는 본능과 충동을 주축으로 하는 인간의 1차과정이다. 자아는 합리적인 체계로 원초아를 충족시키고 자제시키기도 한다. 초자아는 윤리와 같은 양심이라 할 수 있다. 자아를 중심으로 원 초아와 초자아가 적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세 요소의 역동성이 성격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의 본능중 하나인 잔

3) 반동형성 :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억압된 감정이나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제를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0402>, 2011)

4) 장희경, 2003, p.5

혹성은 자아가 원초아를 억제 할 수 없을 때, 또는 자아가 원초아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내제되어 있던 욕구가 표출 되는 것이다.

격투나 투우, 사형 등을 볼 때 외면으로는 잔혹하다고 인정하지만 사회나 문화 또는 타인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향유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피하게 된다.

이처럼 잔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인간의 잔혹함이 카타스트로피에 의하여 인간은 잔혹한 행위를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Ⅲ. 공포만화 <토미에>의 묘사의 잔혹성

1. 묘사의 잔혹성

<토미에>는 잔혹한 장면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공포만화이다. <토미에>에서는 주로 등장하는 잔혹한 신체의 묘사는 첫 번째로 신체파괴의 잔혹성이다. 두 번째로 완전변형재생과 불완전변형재생에 따른 신체변형의 잔혹성이다. 세 번째로 무한 재생 증식하려는 신체증식의 잔혹성이다. 세 부분에서 잔혹한 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신체파괴의 잔혹성

이토준지 공포만화 콜렉션과 공포박물관 비교			
	1	2	3
공포만화콜렉션			
공포박물관			

표 1. 신체파괴의 잔혹성

출처: 이토준지, 1999. 토미에 PART1. p.85, p.86, p.138

<표 1>은 <토미에> 신체 파괴의 잔혹성 중 1999년도 <공포만화 콜렉션>과 2008년도 이야기 순서를 바꿔 무삭제 판으로 나온 <공포박물관>을 비교한 것이다. <표 1>을 살펴보면 신체의 변형이나 증식보다는 신체를 파괴하는 장면을 수정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정 대상은 신체파손, 피, 살상도구, 여성의 신체 노골적인 묘사, 효과 글, 대화 등 이다. 수정 방법으로는 모자이크, 효과 글 삽입, 삭제 등을 이용한 수정이다.

<표 1>의 첫 번째 그림은 공포만화 콜렉션 <토미에>PART1권 중 p.85에서 칼로 토미에의 머리를 내려찍는 장면이다. 공포박물관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칼을 “크악”이라는 효과글로 가리고 피를 지운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해 톤을 조절하였다. 또한 “까악! 아파!!”를 “아악! 너무 아파.”순화 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이토준지 <토미에> PART1권 중 p.86에서 목이 잘려나간 토미에의 모습이다. 목이 잘린 부분을 “투옥”이라는 효과글로 가리고 머리 부분을 연하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토미에>PART1권 중 p.138에서 유리 파편에 찢긴 비닐 피부를 가진 토미에의 모습이다. 쏟아지는 피의 톤을 낮추고 “푸슈”이라는 비닐이 터지는 소리 대신 “푸하악”이라는 효과글로 피를 가리고 있다.

신체의 파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학적 잔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신체를 왜곡하는 1차 단계로서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의 변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신체변형의 잔혹성

		완전변형재생과 불안전변형재생		
단계		1	2	3
완전 변형 재생				
불안 전 변형 재생				

표 2. 신체변형의 잔혹성

출처: 이토준지, 1999. 토미에 PART1. p.155, PART1. p.156, PART1. p.157, PART1. p.123, PART1. p.136, PART1. p.140

신체의 변형은 신체의 재생과 증식을 목전에 둔 토미에의 변화 과정이다. 토미에가 재생하는 과정에서 변형 단계를 거치기도 하며 증식이 불가능할 경우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완전 변형 재생은 토미에의 피가 묻은 카페트에 수많은 토미에가 완전하게 재생하는 모습이다. 카페트를 기생 매개체로 삼아 토미에의 피가 또 다른 토미에로 완전 변형 재생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불완전 변형 재생은 토미에의 피가 묻은 카페트 밑에 깔아 둔 비닐봉지를 피부로 재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완전한 매개체를 숙주로 삼았을 때 불완전한 재생이 이뤄져 결국 파괴되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토미에는 자신이 불완전 변형 재생 된 상태임을 파악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한다.

토미에라는 신체의 틀이 갖는 매개체를 이용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불쾌함과 조바심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맛보게 된다. 정형되지 않은 신체에서 오는 불안함이 신체의 왜곡과 변이로 인해 안도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토미에의 변형되지 않은 모습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기괴함과 불완전 요소를 신체의 변형으로 본래의 이미지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3) 신체증식의 잔혹성





		단일증식과 복수증식		
		1	2	3
단 일 증 식				
				
복 수 증 식				

표 3. 신체증식의 잔혹성

출처: 이토준지, 1999. 토미에 PART2. p.39, p.235, PART1. p.101, PART3 p.66, PART1 p.248, p.158

토미에는 플라나리아⁵⁾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생능력을 지니고 있다. 머리, 팔, 다리, 장기, 피, 세포 등 신체 작은 일부분이라도 완전한 토미에의 모습으로 재생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 3> 단일증식 중 첫 번째 그림은 죽은 토미에의 신장을 이식 받은 소녀의 몸에서 재생 증식되어가는 토미에이다. 잘려진 장기, 신체의 일부가 토미에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그림은 죽은 토미에의 몸에서 또 다른 토미에의 얼굴이 증식되는 모습이다. 신체 파괴로 인한 상처 부위에서 또 다른 토미에가 재생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신체의 훼손 없이도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스로가 분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표 3> 복수증식은 중 첫 번째 그림은 으깨진 토미에의 살로 빛은 술에서 수많은 토미에로 변화하는 과정이 남성애 눈에 환영처럼 비치는 모습이다. 두 번째 그림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졌던 토미에의 신체가 수많은 토미에들로 증식한 장면이다. 세 번째 그림은 카페트에 묻은 토미에의 피가 복수 증식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신체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파괴되거나 피와 같은 액체 상태일 때 복수증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미에>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충동을 표출시킴으로써 파괴와 변형 증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묘사의 잔혹성을 확장 시키고 있다. 완전하고 변형 시킬 수 없다는 금기시 된 신체라는 비언어적 틀을 이용해 파괴되고 변형 된 신체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고 있다.

2. 서사구조의 잔혹성

토미에의 기본 이야기 구조는 죽음 재생 증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토미에에게 각기 다른 삶을 부여하여 어느 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한다. 같은 반이친구였던 토미에의 죽음, 그리고 죽은 것으로만 알았던 토미에가 재생하고 끝없이 증식한다. <토미에>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 재생 증식에 더불어 그것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다.

토막살해로 인한 <토미에>의 죽음이 첫 번째 공포이다.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늙지 않는 토미에라는 기 생명체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토미에>는 토미에가 42개로 토막 나,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시작한다. 각자 받은 조각을 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미에는 멀쩡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온다. 죽었던 토미에가 돌아온 것은 42개의 조각 중 한 조각의 재생을 의미하며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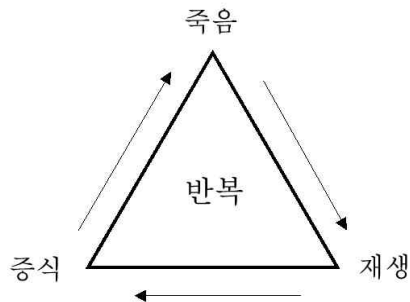


표 4. 토미에 이야기 순환구조

5) 플라나리아 : 주로 작은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먹는다. 자웅동체이며 무성생식과 교미에 의한 유성생식을 한다. 또 재생력이 강하여 몸을 가로로 반으로 잘랐을 때 머리가 붙어 있는 쪽의 단면에서는 꼬리가 재생되며, 꼬리가 달려 있는 쪽에서는 머리가 재생된다. 몸의 100분의 1의 작은 조각에서도 전체가 재생되는 능력이 있으므로 재생 실험에 이용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83875>, 2011)

공포가 된다. 토미에의 재생으로 반 친구들은 자퇴 자가 속출하고 자살, 정신분열을 일으킨다. 세 번째 공포는 어딘가에 버려진 토미에 각각의 조각들이 <토미에>로 증식 한다는 것이다.

1) 남성의 잔혹성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의 잔혹성			
	절단	난도	으깬
1			
2			

표 5. 남성의 잔혹성

출처 : 이토준지, 2002. 토미에 PART3. p.233, p.241, p.178, p.182, p.41, p.43

<표 5>는 ‘절단’, ‘난도’, ‘으깬’으로 분리하여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표이다.

‘절단’의 그림은 <토미에> PART3 중 ‘새끼손가락’에서 새임마로 들어온 토미에가 남자 4형제 중 3형제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과 잘려나간 손가락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아버지가 자살하자 4형제 중 장남이 토미에를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한다. 그런 과정에서 토미에는 막내를 제외한 3형제에게 토막 살인을 당하게 된다. 토미에를 살해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형제는 말한다.

“...우리 세 명이 토미에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어.”“토미에가 우릴 우습게 여겼거든.”“그래서 죽여 버렸지...”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을 우습게 여겼다는 이유로 토미에를 살해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볼 수 있다.

‘난도’의 그림은 <토미에> PART3 중 ‘뚝 모델’에서 처참하게 난도질당한 장면이다. 서로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자신의 얼굴에만 끔찍한 상처가 남자, 토미에의 얼굴이 더 이상 재생 될 수 없도록 난도질하는 장면이다.

‘으깬’의 그림은 <토미에> PART3 중 ‘살로 빛은 술’에서 토미에의 시체를 으깨는 모습이다.

“투명한 눈동자... 달콤한 목소리...” “하얀 피부 위로 흐르는 향기... 그리고 그 매정한 태도...” “증오한다.” 토미에의 모든 것을... 토미에의 팜프 파탈적인 절대적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동시에 토미에를 증오하고 잔인하게 살해는 차원을 넘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시키는 장면이다.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토미에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면서도 잔인하게 살해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질투 배신으로 인한 특정한 상황과 계기에 마주하게 됐을 때, 증오와 분노로 뒤바뀌어 토막살해라는 극단적 상황을 선택 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살해하는 것을 벗어나 신체를 훼손시키고, 재생, 증식, 연구관찰하기도 한다. 잔인하게 살해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관찰자적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소유물로 토미에를 파괴시키려 한다. 또한 재생하는 과정을 돕고 수많은 토미에들을 생산 해 내는데 희열을 느낀다.

<토미에>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토미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살해당하는 당사자인 토미에에게 전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피해자를 살해당해 마땅한 존재로 내몰아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토미에>는 어디까지나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살해했지만 토미에를 기괴한 존재로 내 몰면서 독자로 하여금 타당성을 얻고자한다. 또한 남성의 본능인 증식 욕구가 토미에의 재생과 증식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동적인 외모에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는 토미에가 다른 여자들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고 토미에들을 살해하려는 부분 또한 남성의 야만성과 잔혹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토미에라는 상징적 여성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른 여성을 조롱거리로 삼거나 헤치는 것에 망설임을 두지 않는다. 토미에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토미에가 남성들에게 여왕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 지지만 이는 남성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여성이 토미에인 것이다. 이렇듯 능동적인 토미에는 남성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파괴해도 되는 악녀로 인식하게 된다.

과거 남성 우월주의에 수동적이었던 여성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파괴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여성이 열등한 존재가 아닌 위협적인 존재로 재인식 되는 과정의 단편이라 할 수 있다.

2) <토미에>의 잔혹성

<토미에>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창백한 피부와 검고 긴 생머리로 가장 표준화된 공포물의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토준지는 씨네21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 공포가 인간의 몸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신변잡기적인 것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머리카락에 관한 것은 아마도 가장 전통적인 호러 기법일 것이다. 귀신 이야기에 한 걸 같이 긴 머리의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가. 여성의 피부에 집착하는 것은 피부가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 짓는 중요한 사항인 탓이다. 일본괴담엔 너무나 창백하고 흰 피부의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⁶⁾

창백한 피부와 긴 머리는 일본뿐만 아니라도 공포물의 대표적인 여성상이다. 여기서 여성의 상징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창백한 피부는 여성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을, 긴 머리는 여성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토미에의 눈 밑의 점을 더해 상징적 여성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토미에의 잔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남자들을 이용하고 가해지는 잔혹성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누군가를 살해 하고 싶을 때 등 토미에는 철저히 남자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혹은 파괴 된 자신의 몸을 재생시키기 위해 <그림 1>처럼 남자의 신체를 뜯어 먹고 기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토미에>에 등장하는 다른 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조롱에 가까운 언어와 가학적 행위들이다. “너, 거울도 안 봤어? 그 얼굴로 키타야마 곁에 있겠다는 게 더 몰상식한 거 아니니?” “언니도 나처럼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여자들은 모두 못생겼다고 치부하는 동시에 모멸감을 준다. 심지어는 실험 도구로 삼아 <그림 2>처럼 기괴한 형상으로 변형시키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그림 1. 이토준지, 1999. 토미에 PART1. p.224



그림 2. 이토준지, 1999. 토미에 PART1. p.188



그림 3. 이토준지, 2002. 토미에 PART3. p.158

세 번째로 토미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토미에들을 제거하려는 잔혹성이다.

“난 나 혼자만 충분해. ‘토미에’는 바로 나니까. 다른 토미에는 모두 가짜야. 내 목숨을 노린 토미에는 물론... 그 토미에를 죽이려고 남자를 보낸 다른 토미에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토미에들을 가짜라고 치부하고 끊임없이 살해 하려한다.

<토미에>에 등장하는 수많은 토미에는 재생과 증식을 통해 서로 이어져 기억을 공유하기도 하며, 일부 스토리에서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설정되기도 한다. 토미에는 토미에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시도한다. 이는 <토미에>의 특성중 하나인 자신만이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는 집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에게 찬사를 받고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하지만 토미에마저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버금가는 미모를 가진 토미에들인 것이다. 또한 토미에들은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없애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파악

6) 김익찬, 1999.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토미에>는 끈임 없이 토미에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다.

<토미에>는 아름다운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적 가학을 타당하게 그려내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폭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죄책감을 토미에 떠넘긴다. 토미에 신체적 특성을 괴물로 몰아감으로써 가해자에 편에 선 독자나 <토미에>의 등장인물들은 타당성을 얻게 된다. 토미에를 보는 이로 하여금 놓여진 상황에 동의하게하고 끝내는 편입시키는 것이다. 스스로가 속한 무리에서 비취진 <토미에>는 단지 기괴한 생명체일 뿐이며 잔혹한 상황에 놓였다 해도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 타이른다.

III. 결론

한 기사에서는 친근한 공간에서의 공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일수록 고독한 인간들은 집이나 현대 문명 같은 물리적 존재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긴장을 풀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지역에서 갑작스레 출몰하는 공포는 현대인의 내면을 기습한다.”⁷⁾

익숙한 장소에 갑작스레 출몰하는 잔혹한 사건은 낯선 장소에서의 공포와 다르게 다가온다. 늘 보아오던 학교와 집 직장에서 긴장을 풀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기에 잔혹한 사건이 현재 일어나는 잔혹한 사건과 연결되어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잔혹한 공포를 마주할 때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 피하려는 사람과 공포에 다가가려는 사람이다. 후자의 경우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나 공포에 더 다가가려는 심리를 카타스트로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직접적인 공포가 아닌 간접적인 대리만족의 공포를 접하려는 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자신이 처한 처지에 안도감과 잔혹한 공포에서 오는 감정을 흥미나 재미로 변화시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공포를 극단적인 전환에 의한 정반대 심리인 ‘재밌다’로 인식하게 되며,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 공포의 근원이 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이다.

공포만화 <토미에>의 잔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 파괴로 인한 죽음이며, 이는 토막 살인과 같은 형태로 그려진다. 두 번째는 재생이며, 토막 난 살점만으로도 재생되는 이 과정이 아름다운 형태가 아니라 징그럽거나 혐오스럽게 그려진다는 데 있다. 세 번째는 증식이며, 아름다운 외모와는 상반되게 치명적인 성격 결함을 가진 토미에의 무수한 증식으로 말미암아 토미에의 아름다움을 혐오하게 된다.

사람들은 잔혹하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보고자하는 심리가 있다. 공포만화 <토미에>의 잔혹성을 연구함으로써 공포와 잔혹한 요소들을 독자들이 받아들이고 즐기는 심리에 대해 이해하자는 측면이 있었다. 국내 독자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 수입 공포만화의 경우 등급제한도 없애는 추세이다. 국내의 공포만화 장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극히 소수의 작품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잔혹한 공포만화의 장르가 가진 특성 찾아보고자한 것이다.

7) 오마이뉴스, 2005년 5월 27일.

독자층이 넓고 극히 잔혹한 묘사에 치중한 <토미에>의 연구를 통해 스스로도 공포만화의 대중적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공포만화가 더욱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만화의 한 장르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만화 장르에서 공포만화 장르를 많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빅펜, 『심리학통이 되는 책』, 한국 산업훈련연구소, 1999.
- 양희영,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 베르그송과 들뢰즈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02), pp.32-33.
- 장희경, “Samuel Beckett 극의 잔혹 연극적 특성 : En attendant Godot, Fin de partie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08), pp.5-7.
- 최창희, “독일과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불구적 인물’의 의미 탐구 : G. 그라스 <양철북>, 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02)
- 김의찬, 씨네21 인터뷰, http://cafe.naver.com/dlxhwnsw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2&, 1999년 8월 3일.
- 오마이뉴스, 먼 나라 이방인들의 일본식 공포체험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8166, 2005년 5월 27일.
- 네이버 백과사전, 반동형성, <http://100.naver.com/100.nhn?docid=70402>, 2011.05.10.
- 네이버 백과사전, 플라나리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3875>, 2011.05.10.
- 네이버 지식사전, 카타스트로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33>, 2011.05.10.
- 위키백과, 이토준지,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86%A0_%EC%A4%80%EC%A7%80, 2011.05.10.
- 이토준지, 『공포만화 컬렉션 토미에 PART』 4~5권, 시공사, 1999.
- 이토준지, 『공포만화 컬렉션 토미에 Again』 17권, 시공사, 2002.
- 이토준지, 『공포박물관』 1~2권, 시공사, 2008.

ABSTRACT

Study on Cruelty in the Horror Comics : Focusing on <Tomie> of Ito Junji

An, So-Mi

There are the various genres such as current affairs, romance, academy, Wuxia, sports, psychology, learning, living and horror in cartoons. Among them, the horror comics are based on the story full of real or realistic subject or exaggerated imagination. The horror comic by Ito Junji have gone through the various printings for the classes of reade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is country. This study has begun from necessity of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horror comics genre on the readers by analysis. <Tomie> among Ito Junji's horror comics makes its own cruel horror image by giving a very unrealistic situation to the usual structure of horror genre. The cruel horror comics rouse significance of the analysis of the genre as one genre of the comics. <Tomie> has the 'catastrophe' effect for the readers who want to enjoy and deny it at the same time by stubbornly describing aspect of 'cruelty' of the horror things. This study aims to research 'cruelty of portrayal' of <Tomie> in terms of human psychology.

Key Word : Horror comics, Ito Junji, Tomie, Horror Museum

안소미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석사수료
(501-190)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39-2번지

Tel : 010-7172-1798

coolworld1004@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1.05.15

심사종료일: 2011.06.09

게재확정일: 2011.06.14